중국 고등교육 기회의 불평등

동덕여대 중어중국학과 부교수 김윤태

Ⅰ. 서론

교육은 사회적 신분이동의 중요한 통로로써 현대사회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20세기 많은 국가들이 교육개혁을 추진했고 상당한 정도의 교육기회가 확대되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배경의 자녀교육에 대한 영향력은 결코 감소하지 않았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사회적 지위획득 과정에서 평등한 교육적 기회의 제공은 귀속적 지위인 신분에 기초한 전근대적 계층체계로부터 개인의 능력 혹은 업적에 기초한 산업사회적 계층체계로의 이행을 위한 견인차의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나 만약 한 사회의 교육체계가 결과적으로 사회 불평등 체계를 완화시켜주기 보다는 불평등을 재생산해 내는 역할을 한다면, 그 사회는 건전한 사회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20세기 후반 교육기회의 전반적인 확산에도 불구하고 계층 간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정도가 크게 개선되지 않는 현실에 대하여 서로우(Thurow,1972)는 해석의 틀로 '방어적 교육투자(defensive expenditure)의 개념을 제시한 바 있다. 그에 의하면 교육기회가 점차 확대되고 일반적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지위경쟁의 위험을 느낀 지배계층은 자녀의 교육에 더 많은 투자를 함으로써 자신들의 지배적 지위를 방어하려 한다는 것이다. 지배계층의 이러한 방어적 투자는 현실적으로 '차별화(differentiation)' 전략으로 나타날 수 있다. 즉 교육기회의 확대가 제도적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양적 차원에서 계층위치의 방어가 무의미해질 경우 사회의 중,상 계층은 질적 차원에서의 차별화에 투자를 할 것이라는 의미이다[1].

중국사회는 시장경제의 도입으로 사회구조 전반에 걸친 거대한 변화를 경험한다. 이러한 사회구조의 변화에 관심을 갖는 사회학자들은 그동안 주로 소득분배의 형평에 관심을 집중시켰다[2]. 그러나 정작 교육이 소득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임을 감안한다면 교육불평등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중국의 고등교육 기회의 형평에 대한 관심과 검토는 지극히 필요한 작업이라 할 수 있다. 사실 그동안 중국 학계나 세계 학계는 이 문제에 대해 상당히 많은 관심과 연구를 진행해왔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성과들이 제각기 흩어져 있어 종합적인 이해를 구하기가 쉽지 않다.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는 이러한 성과가 아직 소개되지도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자료들을 충분히 활용하여 체계적인

---

1) Raftery, A. E. and M. Hout. 1993. "Maximally Maintained Inequality :Expansion , Reform , and Opportunity in Irish Education : 1921-1975 ", *Sociology of Education,* 66:41-62.

2) Nee, V. 1989. "A Theory of Market Transition : From Redistribution to Markets in State Socialism.",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4 : 663-681; Nee, V. 1996."The Emergence of a Market Society : Changing Mechanisms of Stratification in China ",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01:908-949; Bian , Y. and J . R. Logan. 1996. "Market Transition and Persistence of Power: The Changing Stratification in Urban China",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61: 739-758; Zhou, X. 2000, "Economic Transformation and Income Inequality in Urban China",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05: 1135-1174.

해석의 기초 위에 비교적 명확한 현상인식을 목적으로 기존 연구성과들을 종합할 것이다.

중국사회의 교육불평등 특히 고등교육에서의 불평등 문제를 분석하기 위해서, 우선 중국사회에서의 교육기회의 확대과정을 살펴볼 것이다. 다음으로는 교육기회와 성취수준이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개인의 귀속적 지위인 출신가정과 성장환경의 사회경제적, 제도적 여건에 의해 결정되는지를 분석할 것이다. 이어서 현재 일정하게 고착화된 불평등 구조가 야기된 원인과 의미를 살펴볼 것이다.

Ⅱ. 교육기회의 확대와 시기별 특징

중국의 고등교육기관은 일반적으로 '고등학교(高等學校)'로 불리는데, 이는 '보통고등학교'와 '성인 고등학교'의 두 종류로 대별된다. 전일제 일반 대학을 의미하는 보통고등학교는 다시 대학(大學)과 학원(學院), 고등전과학교(高等專科學校), 고등직업학교(또는 職業技術學院)로 나뉜다[3]. 2007년 기준으로 석박사를 배출하는 교육기관은 모두 795개교이고, 대학[普通高校][4]은 1,908개교인데, 이 중 4년제대학[本科院校]이 740개교, 전문대학[專科院校]이 1,168개교이다. 그밖에 직업기술학교[職業技術學院]가 1,015개교, 성인고등교육기관이 413개교, 민영 고등교육기관이 906개교이다[5].

<표1> 중국 고등교육기관(2007년) **단위: 개소**

항목	총계	중앙			지방			사립
			교육부	기타 위원회		교육부서	비교육부서	
연구생 육성기구(대학원)	795	371	73	298	424	358	66	
일반대학	479	98	73	25	381	357	24	
과학연구기구	316	273		273	43	1	42	
일반대학	1908	111	73	38	1502	852	650	295
4년제 정규대학	740	106	73	33	604	532	72	30
전문대	1168	5		5	898	320	578	265
#직업기술대학	1015	2		2	754	251	503	259
성인대학	413	14	1	13	397	161	236	2
사립 기타 고등교육기구	906							906

3) 학원(學院)은 우리의 단과대학에 , 고등전과학교(高等專科學校)는 전문대학에 해당된다. 중국의 고등교육기관에 대해서, 김필동, 「중국 고등교육의 발전과 최근 대학개혁의 방향-1990년대의 고등교육정책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제13권(서울:2002), 85-86쪽에 상세하게 소개되어 있다.

4) 중국의 고등교육과 관련된 용어들은 우리의 그것과 약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특유의 용어들은 우리식 표현을 사용하고 대괄호[]안에 중국식표현을 병기하여 원문대조에 편리하도록 배려한다. 예컨대, 대학[普通高校], 단과대학[學院] 등.

5) 2008년 중국통계연감, http://www.stats.gov.cn/tjsj/ndsj/2008/indexch.htm(검색일: 2010.2.14)

교육 불평등의 역사적 추세를 분석한 연구자들은 공통적으로 교육확대(educational expansion)에 주목해왔다. 이에 관한 핵심적인 질문은 "교육확대가 기존의 불이익 집단에게 보다 많은 기회의 제공을 통해 불평등을 줄여주고 있는가, 아니면 기존의 이익집단에게 상대적으로 더 큰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불평등을 확대하고 있는가(Shavit, Arum, and Gamoran, 2004:1)"라고 할 수 있다.

중국에서의 교육기회의 확대는 시기별로 서로 다른 의미의 평등을 향해 이루어진다. 국가의 이데올로기 변화에 따른 교육방침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이다. 1978년 이전에는 극도의 불평등했던 구조를 치유하는 평등화방향의 교육기회 확대가 추진되었다. 그런가 하면, 1978년 이후에는 시장화의 진척에 따라 교육기회 또한 점차 불평등한 구조를 형성하기 시작한다. 가정환경과 제도적 요인의 교육 획득에 미치는 영향력이 점차 증대한다. 교육에 있어서의 이러한 변화에는 국가의 정치적 이데올로기, 국가의 발전목표와 발전방식의 변화가 그 배후로 작용한다.

1. 혁명의식과 평민의식의 확대

개혁개방 이전 중국 고등교육은 확대일로에 있었던 것만은 아니었다. 문화대혁명 기간 동안 중국의 대학은 심각한 타격을 받았다. 중국인민대학을 비롯하여 중국의학원, 북경정법학원, 국제관계학원 등 많은 대학이 폐교 당했고 대학의 고유한 교육 연구기능은 심각하게 훼손당했다. 대학생을 시험으로 선발하는 제도가 폐지되고 학생들은 신분과 당에 대한 충성도 등 다른 기준에 따라 대학에 진학하는 등 대학은 정부의 이데올로기에 의해 심각한 타격을 받은 사실도 간과해선 안 된다. <표2>에서 확인되듯이, 건국에서 1962년까지는 학교수와 전임교사수, 학생수 모두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문혁이 시작되기 직전인 1965년부터 교육은 타격을 받기 시작했으며 문혁의 결과가 나타나는 시기라 할 수 있는 1970년에는 전임교사수, 학생수 모두 현격하게 감소했음을 보여준다. 비록 1975년부터 다시 회복세를 보이긴 했으나 문혁기간 동안의 교육기회에 대한 폐해를 가히 짐작할 수 있다.

<표2> 개혁개방 이전 중국 대학[普通高等學校]의 현황

연도	학교수 (개소)	전임교사수 (만명)	입학생수 (만명)	재학생수 (만명)	졸업생수 (만명)
1952	201	2.7	7.9	19.1	3.2
1957	229	7.0	10.6	44.1	5.6
1962	610	14.4	10.7	83.0	17.7
1965	434	13.8	16.4	67.4	18.6
1970	434	12.9	4.2	4.8	10.3
1975	387	15.6	19.1	50.1	11.9

자료출처: 중국통계연감 1996년

개혁개방 이전 고등교육기회의 양적 성장과 더불어 관심을 가져야 할 주제로 당시 고등교육의 확대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에 대한 파악이다. 중화인민공화국의 건국 초기 중국은 해방구 시절의 교육방침을 전승해 혁명의식과 평민의식을 강력하게 반영시킨다.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건국되기 직전 통과된 '공동강령[中國人民政治協商會議共同綱領]'에서 규정한 중국교육의 기본방향은 '민족적, 과학적, 대중적 문화교육'을 지향하는 것이었다.

중국정부는 교육기회의 평등화를 추진하기 위해 행정적 수단으로써 노동자와 농민자제의 입학기회를 확대시키는 정책을 추진했다. 예컨대, '추천입학제'와 '동등한 조건 하에서의 우선 고려' 등의 정책을 통해 노동자와 농민자제의 교육기회를 확대시켰다. 그 직접적인 결과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노동자와 농민자제의 취학비중은 1953년의 28%에서 1958년의 55%, 1965년에는 71%로 급격하게 상승했다[6]. 그동안 교육기회의 불평등을 생산했던 가정의 경제적, 문화적 요인의 영향력은 약화되고 대신 가정의 정치적 요인이 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된 셈이다. 한편, 이 시기 교육기회의 확대 특징을 설명하는 또 다른 연구에서는 노동자와 농민자제의 교육기회 확대라기보다는 오히려 간부와 군인자제의 교육기회가 더욱 두드러지게 확대되었음을 지적하기도 한다[7]. 이러한 지적은 당시의 교육평등은 '비노동자' 자녀에 대한 차별적 대우로 특징 지워진다는 지적과 궤를 같이 한다. 즉, 간부자녀에게 부여된 교육특권은 또 다른 특정 계층의 교육받을 권리를 심각하게 침범한 대가라는 지적이다[8].

위와 같은 분석에서 이 시기 중국정부가 제시하고 추진한 교육공급의 표준에는 학업성취도 외에도 가정의 출신성분과 개인의 정치적 충성도가 고려되었으며, 국가의 힘이 교육기회를 포함한 개인의 생활영역까지 깊숙이 개입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시장화와 고등교육의 성장

1978년 개혁개방 정책의 실시와 함께 대학교육은 새로운 발전의 전기를 맞게 되었다. 중국공산당 당내에서도 "지식과 인재를 존중해야 한다[尊重知識尊重人才]"는 인식이 힘을 얻게 되었고, 폐교되었던 대학이 복원되었으며 중점대학 육성사업도 재개되었다. 또한 폐지되었던 입시제도도 복원되어 경쟁에 의해 대학생을 선발하는 길이 다시 열렸다.

그 후 덩샤오핑(鄧小平)의 각종 담화문[講話]을 근거로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이 설계 시행되었다. 예컨대, 대학의 운영자주권을 확대하여 다양한 형식의 학교운영이 허용되었으며, 다양한 전공분야의 신설과 폐지되었던 학과의 복원 조치 등을 통해 중국의 고등교육은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되었고, 고등교육기회가 획기적으로 확대되었다.

중국의 교육환경은 다음의 몇 가지 관련정책에 의해 크게 개선되고 교육기회는 급속도로 확대된다. 우선, 문혁시기 폐지되었던 대학입학시험의 부활이 직접적 계기가 된다.

다음으로, 대학 모집정원의 확대[擴招]로 고등교육기회가 획기적인 확대를 경험한다. 대학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중국은 1999년부터 일반대학의 신입생 모집정원을 크게 증가시켰다[9]. 1998년 대학의 입학생수가 108.4만 명이었으나 1999년에는 입학생수가 159.7만명에 달하여 전년대비 40%를 웃도는 증가세를 보인다. 이밖에 사립대학[民辦高校]의 활성화, 원격교육, 성인교육 등 다양한 통로를 통해 고등교육기회가 빠른 속도로 확대되었다(박영록,2005:600-601).

---

6) Deng Zhong , Donald J . Treiman. The Impact of the Cultural Revolution on Trends in Educational Attainment 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The A merican Journal of Sociology* , 1997 , 103 (2) : 399; 刘海峰, 『公平与效率:21世纪高等教育改革与发展』(福州:福建教育出版社,2003), 425쪽.

7) 刘精明, 『国家、社会阶层与教育:教育获得的社会学研究』,北京:中国人民大学出版社, 2005 : 166 ,168.

8) 杨东平, 「从权利平等到机会均等—新中国教育公平的轨迹」, 『北京大学教育评论』, 2006 (2) : 2 - 11.

9) 신입생 모집정원확대[擴大招生]를 중국에서는 줄여서 '擴招'라 부른다.

셋째로, 정부의 교육예산 지원의 확대를 빼놓을 수 없다. 중국정부의 교육예산 지출은 1978년 이래로 줄곧 빠르게 성장했다.(표 참조). 1980년 중국정부는 80년대 말까지 기초교육을 달성하고 90년대에는 '9년 의무교육'을 완성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하였으며 실제로 이 목표를 상당부분 달성한 것으로 보인다. 중학교 진학률은 90년대 중반에 이미 100%를 달성했고, 고등학교 진학률 또한 80년대의 30%에서 2005년의 60%로 상승했다. 1998년부터 시작하여 고등교육 또한 성장추세를 보였다(閔維方主編,2006). 몇 년 동안 고등교육 진학률은 40%에서 80%로 가파르게 상승했다. 중국 고등교육의 양적 성장은 <표3>를 통해 그 추세를 확인할 수 있다.

<표3> 개혁개방 이후 중국 대학[普通高等學校]의 현황

年份	학교수 (개소)	전임교사수 (만명)	입학생수 (만명)	재학생수 (만명)	졸업생수 (만명)
1978	598	20.6	40.2	85.6	16.5
1980	675	24.7	28.1	114.4	14.7
1985	1016	34.4	61.9	170.3	31.6
1986	1054	37.2	57.2	188.0	39.3
1987	1063	38.5	61.7	195.9	53.2
1988	1075	39.3	67.0	206.6	55.3
1989	1075	39.7	59.7	208.2	57.6
1990	1075	39.5	60.9	206.3	61.4
1991	1075	39.1	62.0	204.4	61.4
1992	1053	38.8	75.4	218.4	60.4
1993	1065	38.8	92.4	253.6	57.1
1994	1080	39.6	90.0	279.9	63.7
1995	1054	40.1	92.6	290.6	80.5
1996	1032	40.3	96.6	302.1	83.9
1997	1020	40.5	100.0	317.4	82.9
1998	1022	40.7	108.4	340.9	83.0
1999	1071	42.6	159.7	413.4	84.8
2000	1041	46.3	220.6	556.1	95.0
2001	1225	53.2	268.3	719.1	103.6
2002	1396	61.8	320.5	903.4	133.7
2003	1552	72.5	382.2	1108.6	187.7
2004	1731	85.8	447.3	1333.5	239.1
2005	1792	96.6	504.5	1561.8	306.8
2006	1867	107.6	546.1	1738.8	377.5
2007	1908	116.8	565.9	1884.9	447.8

* 자료출처: 2008년 중국통계연감
* 보통고등학교[普通高等學校]에는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이 포함됨(성인고등교육은 제외됨).

1978년부터 2007년까지 대학의 수는 약 3배 이상, 입학생수는 무려 10배 이상 증가했다. 물론 대학수가 매년 늘어난 것만은 아니다. 1988년 이후 10년 동안은 대학수의 증가세가 주춤했는데, 이는 기존 대학의 합병과 통합이 함께 진행되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이 시기에도 입학생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한데서 이러한 해석이 설득력을 갖는다.

학생수는 더욱 빠른 성장추세를 보여준다. 입학생수, 재학생수, 졸업생수 모두 빠른 증가속도를 보여준다. 이러한 증가추세는 중국경제가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이상 앞으로도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판단된다.

Ⅲ. 고등교육 기회의 불평등

중국은 개혁 이후 사회분화의 가속과 함께 사회적 약세집단의 고등교육기회 침식에 따른 사회적 불평등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었다. 가정의 사회적 지위가 비교적 높은 학생이 해당 계층의 인구비중을 초과하는 교육기회를 차지하는 현실에서 사회적 불평등의 문제가 제기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진학기회, 학과 및 전공 선택, 교육성과의 차원에서 어떠한 불평등 현상이 존재하는가를 검토한다.

1. 진학기회

고등교육기회의 평등한 분배와 관련된 연구들은 일반적으로 배출율의 개념으로써 각 계층의 교육기회의 점유 상황을 가늠한다. 사회구조의 심각한 전환을 경험하고 있는 중국의 경우, 사회집단의 분화속도가 가속되고, 사회분화의 복잡성 또한 충분히 예견된 일이다. 중국사회는 개혁 초기 도농 간 격차를 위주로 한 공농 이원적 분화의 성격에서 복잡한 다원구조로의 분화로 특징짓고 있다. 중국의 계층구조에 대한 연구에 근거하면, 중국 사회는 이미 10대 사회계층으로 확연히 분화되었다[10]. 선택적 성향이 강한 고등교육의 단계에서는 대학선택에 있어서 개인이 속한 사회계층이 갖고 있는 사회적 자원의 간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각 사회계층의 교육기회의 실현결과가 서로 다르게 나타나게 된다.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초기에는 노동자와 농민에 경도된 교육정책을 시행했기 때문에 노동자 농민 자녀의 고등교육 진학비율이 빠르게 높아졌다. 노동자 농민 자녀의 고등교육 입학생 중의 비중은 1952년의 20.5%에서 1958년에는 55.28%, 1965년에는 71.2%에 달하게 되었다[11]. 그러나 이러한 추세는 개혁개방 이후에 다시 역전되었다. 1980년 베이징의 8개 대학 입학생의 가정환경에 대한 조사에 근거하면, 농민과 노동자 자녀는 각각 전체 입학생의 20.2%와 25%를 차지했을 뿐이었다. 또한 1990년의 경우, 베이징지역 17,248명의 신입생 중 겨우 21%만이 노동자 농민자녀였음이 밝혀졌다[12]. 이는 시장체제로의 체제전환과 더불어

10) 陆学艺, 『当代中国社会流动』(北京:社会科学文献出版社,2004), 13쪽.
11) 刘海峰, 『公平与效率:21世纪高等教育改革与发展』(福州:福建教育出版, 2003), 425쪽.
12) 杨东平, 「从权利平等到机会均等—新中国教育公平的轨迹」, 『北京大学教育评论』, 2006 (2) : 2 - 11; 郭从斌,闵维方, 「家庭经济和文化资本对子女教育机会获得的影响」, 『高等教育研究』, 2006(11) : 24 -31; Zhou Xueguang ,

노동자 농민자녀가 수혜집단에서 비 수혜집단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90년대부터 적지 않은 연구들이 고등교육 학생들의 가정배경을 조사했다[13]. 그러나 이들 연구는 대학의 등급을 고려하지 않음으로써 분석결과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즉, 등급이 높은 대학에서의 농민자녀의 진학비중은 등급이 낮은 대학에서의 진학비중에 비해 현격히 낮은 사실을 가려내지 못했기 때문에 각 연구의 분석결과가 일치하지 못한 것이다. 1998년 실시된 대규모 조사결과는 이들 기존 연구의 문제점을 보충했다[14]. 이 보고서에 따르면(<표4> 참조), 농민자녀의 비중은 대학의 등급이 높을수록 낮아지고, 간부와 기업 경영관리자, 전문기술자의 자녀는 등급이 높은 대학일수록 점차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또한 1994년 입학 학생에 비해 1997년 입학 학생의 경우에서 이러한 경향이 더욱 선명하게 나타났다[15]. 이는 가정배경이 열세인 농민, 노동자 계층 자녀의 입학기회가 등급이 높은 대학일수록 제한적이며 시간이 갈수록 더욱 격차가 심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각 계층의 양적 규모를 고려하여 고등교육 재학생 비중을 환산하면 각 계층 간 교육기회의 차이를 더욱 명확하게 볼 수 있다[16]. <표6>의 각항 하단의 괄호 안의 수치는 농민을 기준으로 각 계층별 교육기회의 차이를 나타낸 것이다. 농민과 노동자, 간부, 기업 경영관리자 및 전문기술자, 그리고 자영업 및 사영기업주 계층 자녀의 고등교육 진학 가능성 비는 1: 2.5: 17.9: 12.8: 9.4: 3.4이다. 노동자와 농민의 자녀와 기타 정신노동에 속하는 계층 자녀와의 격차가 심각한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국가중점대학의 경우 이러한 격차가 더욱 두드러진다.

한 가지 더욱 의미 있는 것은, 신흥계층인 자영업과 사영기업주 계층 자녀의 진학기회가 농민과 노동자 계층의 자녀보다 높다는 점이다. 비록 간부나 전문기술자 자녀만큼 선명하진 못하나 노동자의 자녀보다 0.9배, 농민의 자녀보다 3.4배나 진학기회가 높다는 사실은 현재 농민과 노동자의 사회적 지위와 고등교육 기회에서의 열세적 지위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게 한다.

<표4> 고등교육 재학생의 출신계층 분포(1994년, 1997년 입학생)

고등교육 등급[17]	농민	노동자	당정(黨政) 간부	기업의 경영관리자	전문기술자	군인	자영업, 사영기업주	기타
1등급 국가중점	21.8 (1)	23.1 (4.0)	14.4 (31.7)	10.3 (22.6)	16.4 (17.4)	0.8 (-)	3.7 (4.1)	9.5 (-)
2등급 일반중점	30.8 (1)	19.5 (2.4)	12.6 (19.6)	8.9 (13.9)	14.4 (10.8)	0.5 (-)	5.0 (3.9)	8.3 (-)

Moen P , Tuma N B. Educational Stratification in Urban China : 1949 - 94, *Sociology of Education* , 1998 , 71 (3) : 199 - 222.

13) 姜相志, 「社会分层对子女接受高等教育机会的影响」, 『青年研究』, 1992 (12); 刘宏元, 「努力为青年人创造平等的受教育机会—武汉大学1995级新生状况调查」, 『青年研究』,1996 (4); 赵叶珠, 「家庭背景对高等教育入学机会的影响」, 『青年研究』, 2000 (3); 孟东方,李志, 「学生父亲职业与高等学校专业选择关系的研究」, 『青年研究』,1996 (11)

14) 谢维和,李雪莲, 「高等教育公平性的调查与研究报告」, 曾满超, 『教育政策的经济分析』(北京:人民教育出版社,2000)

15) 이 조사는 세계은행과 중국교육부가 지원하여 전국 서로 다른 등급의 37개 대학(전문대학 제외)의 근 7만여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된 광범위한 조사이다.

16) 1995년 국가통계국의 통계자료를 통한 전국 직업별 종사자수를 근거로 주요 계층의 양적규모를 환산하고, 또한 이를 근거로 37개 대학에 대한 조사결과에 대입하여 추산한 수치이다. 보다 자세한 방법은 张玉林,刘保军, 「中国的职业阶层与高等教育机会」,『北京师范大学学报 (社会科学版)』, 2005(3), 27-28쪽을 참조할 것.

3등급	29.8	23.4	9.7	8.2	12.0	0.8	3.5	12.6
일반대학	(1)	(3.0)	(15.6)	(13.2)	(9.3)	(-)	(2.8)	(-)
4등급	45.6	17.2	9.5	6.0	7.1	0.6	5.6	8.4
지방대학	(1)	(1.4)	(10.0)	(6.3)	(3.6)	(-)	(2.9)	(-)
고등교육	31.4	20.8	11.7	8.4	12.7	0.7	4.4	9.9
샘플 전체	(1)	(2.5)	(17.9)	(12.8)	(9.4)	(-)	(3.4)	(-)

자료출처:謝維和,李雪蓮,「高等教育公平性的調查与研究報告」,曾滿超,『教育政策的經濟分析』(北京:人民教育出版社,2000), 268쪽; 張玉林,劉保軍, 「中國的職業階層与高等教育机會」,『北京師范大學學報 (社會科學版)』, 2005(3), 27-28쪽에서 재인용.

위와 같은 분석에서 중국사회에서는 가정의 사회경제적 자원의 점유에 따른 고등교육 진학기회의 불평등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농민과 노동자 계층의 자녀는 고등교육 진학기회에 있어서 간부 및 기업경영관리자, 전문기술자 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세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등급이 높은 대학일수록 농민과 노동자 계층 자녀의 진학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사실도 확인되었다.

2. 대학선택, 학과선택

각 사회계층 자녀가 어떠한 등급의 학교와 전공에 집중되어 있는가에 대한 파악은 고등교육기회 문제의 또 하나의 중요한 내용이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숨겨진 형식의 교육 불평등을 제대로 감지하지 못한다[18]. 예컨대, 하층 계급의 자녀들은 특정한 전공에 집중되거나 학습 진도가 늦다는 사실을 알아채지 못한다. 고등교육의 전공과 미래의 직업은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 특히 갈수록 직업이 분화되고 학력의 중요성이 더해짐에 따라, 특정 직업집단과 사회적 지위의 획득은 구성원의 학위취득에 더욱 강하게 의존하게 된다. 또한 그럼으로써 해당 특정직업의 엘리트적 지위를 공고히 하기도 한다[19]. 일단 이러한 특정 직업집단에 진입하게 되면 비교적 높은 소득과 지업지위, 사회적 지위를 누리게 된다. 일반적으로 배타적인 직업집단일수록 그 지위가 상대적으로 높다. 따라서 이런 의미에서 특정 대학과 특정 전공의 선택은 학생 개인의 흥미와도 관련되지만 미래의 사회적 지위에 대한 선택이기도 하다.

적지 않은 연구에서 고등교육의 등급이 높을수록 사회적 약세계층인 농민, 노동자계층의 학력획득기회는 줄어든다고 지적하고 있다. 1995년 실시된 우한(武漢)대학 신입생에 대한 조사에 근거하면, 노동자 농민계층 자녀의 소위 '인기학과'에서의 비중은 그들의 전체 학과에서의 비중에 비해 비교적 낮은 반면, '기초학과'에서의 비중은 그와는 반대로 나타났다. 당정(黨政), 기사업 단위의 간부와 전문기술인력 자녀는 컴퓨터과학, 국제무역, 국제금융 등 전공을 거의 독차지하고 있다[20]. 이러한 특징은 충칭(重慶)의 8개 대학에 대한 조사에서도 선명

17) 원저자의 설명에 의하면, 1등급은 가장 높은 등급의 국가중점대학, 2등급은 국가와 성급 소속 중점대학, 3등급은 1,2등급 외의 지역제한 없는 일반대학, 4등급은 지역에 국한되어 학생을 모집하는 지방성 대학을 지칭한다.

18) 布尔迪约,帕斯隆, 『继承人—大学生与文化』, 邢克超译.(北京:商务印书馆, 2002), 33쪽.
19) 赵康, 「专业、专业属性及判断成熟专业的六条标准」, 『社会学研究』, 2000 (5) : 30 - 39쪽.
20) 刘宏元, 「努力为青年人创造平等的受教育机会—武汉大学1995级新生状况调查」, 『青年研究』, 1996(4) : 7 - 11쪽.

하게 나타났다. 785명의 인기학과 학생 중 당정간부, 기사업단위 간부와 전문기술자 자녀의 합은 47.1%로 전체비중(33.9%)보다 13.2%나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농민자녀는 겨우 24.8%로 전체비중보다 14.4% 낮게 나타났다[21].

또 다른 연구도 이와 유사한 분석을 내놓았다. 소득수준이 낮은 가정의 자녀일수록 학생은 사범대학, 농림, 지질광업과 등의 전공을 선택하고, 소득수준이 높은 가정의 자녀는 대체로 공과, 외국어, 신문방송, 예술, 경영, 법률 및 의학전공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22]. 이와 같이 가정환경이 우수한 계층의 자녀들은 인기학과 및 예술계열의 전공을 선택하는 경향을 가진데 비해, 저소득 계층의 자녀들은 비인기학과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는 등 학과선택에 있어서도 계층속성이 표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5> 계층별 대학 전공분포

가장직업 / 학생전공		농민	노동자	당정 간부	기사업 단위 간부	전문 기술자	자영업	군인
우한 (武漢) 대학	수학	21.0	25.8	9.0	18.0	16.9	3.8	-
	역사	29.5	22.7	4.5	26.1	13.6	1.1	-
	컴퓨터	12.2	23.1	7.7	23.1	28.6	1.1	1.1
	국제 무역	11.4	11.4	20.0	34.3	22.9	-	-
	국제 금융	12	4	12	34	38	-	-
	전체	23.1	22.2	8.3	23.8	20.9	0.9	0.4
충칭 (重慶) 8개 대학	인기 학과	24.8	25.2	9.3	19.6	18.2	1.4	0.5
	비인기 학과	54.8	14.0	9.4	8.4	10.0	2.0	0.5
	전체	39.2	23.5	8.4	14.7	10.8	2.0	0.5

자료출처: 張玉林,劉保軍, 「中國的職業階層与高等教育机會」,『北京師范大學學報 (社會科學版)』, 2005(3), 29쪽에서 재인용.

이러한 현상에 대해 몇 가지 해석이 설득력을 갖는다. 우선, 이성적 선택의 차원에서 생각한다면, 전공을 선택할 때 계층별로 서로 다른 위험요인을 고려한다는 것이다. 비인기 학과는 상대적으로 학비가 저렴하고, 합격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저소득 가정의 경우 재수가 가져다주는 경제적 부담과 기회손실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고소득 가정의 경우, 비교적 많은 진학기회가 있기 때문에 학과를 선택할 때 해당 전공의 개인적 예상수익을 더

21) 张玉林,刘保军, 「中国的职业阶层与高等教育机会」,『北京师范大学学报 (社会科学版)』, 2005(3), 29쪽.
22) 钟宇平,陆根书, 「高等教育成本回收对公平的影响」, 『北京大学教育评论』, 2003(2) : 52 - 64쪽.

욱 많이 고려한다는 것이다. 둘째로, 계층별 정보획득의 차이를 들 수 있다. 하층 가정의 경우 외부세계와의 접촉기회와 사회관계의 폭이 넓지 않기 때문에 관련전공 및 해당 전공의 발전전망 등에 대한 효과적 정보를 획득하기 수월하지 않다. 셋째로, 문화적 자본의 효과를 들 수 있다. 예술과 같은 전공은 어렸을 때부터의 장기간에 걸친 학습이 필요하기 때문에 충분한 경제적 자원과 문화적 자본을 갖춘 가정의 자녀만이 선택할 수 있는 분야이다[23]. 비록 이러한 해석이 아직은 가설에 불과해 보다 실증연구의 입증이 필요하긴 하나 설득력이 전혀 없지는 않다.

3. 교육성과

직업을 획득하는데 있어 교육의 영향력은 몇 번의 부침을 겪지만, 결국 개혁개방 이후에 본격적으로 강력해진다. 건국 이래 단위특성과 교육정도의 직업획득에 미친 영향을 비교한 연구에 따르면, 1949년에서 1956년까지는 전민단위(국유단위)의 영향력이 비교적 컸으나 1957년부터 1965년까지는 교육정도의 영향력이 첫 직장의 영향력에 비해 컸다. 한편, 문혁기간인 1966년부터 1976년까지는 전민단위의 영향력이 가장 중요했음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 후 1977년부터 1991년까지 첫 직장의 영향력이 점차 감소하는 반면 교육정도의 영향력이 그 자리를 대신하기 시작했다. 1990년대 이후 가장의 소속단위의 영향력은 한층 감소했고 첫 직장에 대한 학력의 영향은 빠르게 증가했다[24]. 도시노동자의 세대 간 이동에 대한 연구에서도 밝혔듯이, 개인의 교육 획득 정도는 이미 도시 노동자의 세대 간 이동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었으며, 그 다음이 가장의 직업등급과 교육이다[25].

중국의 체제 전환이 빠르게 진전되면서, 중상층 화이트컬러 계층에 진입하는 학력기준은 중등 직업기술 교육에서 고등직업 기술교육을 거쳐 정규 고등교육으로 빠른 속도로 전환되었다[26]. 개인의 교육수준이 자신의 직업획득에 점차 강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으며, 직장의 인사표준 역시 연공서열과 가정출신배경에서 학력으로 변화했다. 그러나 이러한 추세가 반드시 개인의 사회적 신분이동 장벽의 약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졸업장이 또 하나의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북경 청화대학 졸업생의 사회진출 상황을 통해 졸업장의 위력, 즉 교육성과에서의 불평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1982년에서 1986년의 5년 간 4,615명의 졸업생의 58%에 달하는 2,675명이 중앙국가기관과 중앙의 기사업단위에 배속되었다[27].

교육수준과 소득의 상관관계를 통해서도 이러한 불평등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 개혁개방 후, 능력주의가 계획경제 분배기제인 평균주의 분배를 대신하면서 교육의 경제적 효과 또한 부단히 증가하기 시작했다. 교육의 경제적 효과의 증대는 기존의 신분질서의 변화를 교육이 담당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현재 중국에서의 교육의 경제적 효과는 다분히 선택적이다. 즉, 도농 간, 체제 내와 체제 외 경제영역 간 경제적 효과의 차이가 선명하게

---

23) 潘彭丹,余期江, 「浅析当前阶层分化对高等教育机会获得的影响」, 『江西科技师范学院学报』, 2004(2) : 4- 7 ,19 쪽; 洪岩璧, 錢民輝, 「中國社會分層與教育公平:一個文獻綜述」, 『中國農業大學學報(社會科學版)』, 2008, 25(4), 73쪽.

24) 张翼, 「中国人社会地位的获得—阶级继承和代内流动」, 『社会学研究』, 2004 (4) : 86.

25) 马和民, 「当前中国城乡人口社会流动与教育之关系」, 『社会学研究』, 1997(4) : 64 - 72.

26) 刘精明. 「教育与社会分层结构的变迁—关于中高级白领职业阶层的分析」, 『 中国人民大学学报』, 2001(2) : 21 - 25.

27) 清華大學志編輯委員會, 『清華大學志(上)』, 北京: 清華大學出版社(2001), 227쪽.

드러난다. 리춘링(李春玲)은 도농 간 이원적 구조가 교육의 경제적 효과에 여전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28]. 그에 의하면, 교육의 경제적 효과는 도시 취업자가 11.4%로 농촌취업자의 4.3%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또한 우샤오강(Wu Xiaogang)은 '선택적 유동모델'을 통해 시장화 부문에서의 교육의 경제적 효과는 단지 최근 시장 진입자에 국한됨을 발견했다. 기존 시장부문 진입자의 경우는 교육의 경제적 효과에 있어 비시장부문 즉 국유부문 진입자와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29]. 이는 시장화의 진척이 교육의 경제적 효과를 높인다는 명제에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이밖에, 교육을 통해 효과를 본 계층은 여전히 체제 내 엘리트 계층이란 분석도 설득력을 더한다. 1998년 베이징(北京), 우시(無錫), 주하이(珠海)의 3개 지역 3,975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각 계층 내부의 계승성이 여전히 중국사회의 중요한 특징이라는 비관적인 분석결과를 내놓았다. 비록 재분배경제에서 시장경제로 전환하였으나 상층계급의 계급재생산 특징은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는 분석이다[30].

이상의 분석은 교육성과에 있어서도 농민과 노동자 계층은 여전히 불이익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Ⅳ. 불평등 현상의 사회구조적 요인

1. 도농 간 교육자원배치의 불균형

《중국교육경비통계연감》과 관련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각급 교육단계의 거의 모든 중요지표들에서 도농 간 지역 간 격차를 확인할 수 있다. 투입의 차이는 결국 교육의 질의 차이를 결과한다. 교육의 질과 학생의 능력 또한 직접적이고도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

장기적으로 교육경비는 주로 국가재정성 투입에 의존했다. 문제는 그동안의 공공교육 투입의 상당부분이 동부에 집중되었고 중서부는 상대적으로 경시되었다는 점에 있다. 학생1인당 교육경비를 통해 볼 때, 초중등학교는 물론이고 대학마저도 동부지역이 중서부지역에 비해 월등하게 높게 책정되어 있다.(<표6> 참조)

<표6> 대학생 1인당 평균 교육경비 지역 간 비교

단위: 위안(元)

	동부	중부	서부
1998	15,547. 9	11,236. 7	10,457. 9
2000	18,383. 1	12,608. 3	12,225. 3
2001	16,741. 8	12,973. 9	12,150. 0
2002	17,409. 9	12,419. 9	12,434. 4
2003	17,946. 9	12,146. 3	11,834. 4
2004	15,900. 0	10,533. 7	11,088. 1

28) 李春玲, 「文化水平如何影响人们的经济收入—对目前教育的经济收益率的考查」, 『社会学研究』, 2003(3) : 64 - 76.

29) Wu Xiaogang , Yu Xie. Does the Market Pay off ? Earnings Returns to Education in Urban China,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2003 , 68 (3) : 425 - 442.

30) 李路路, 「制度转型与分层结构的变迁—阶层相对关系模式的"双重在生产"」, 『中国社会科学』, 2002(6) : 105 - 118쪽.

자료출처:『중국교육경비통계연감』연도별 통계자료에서 계산.溫嬌秀, 「地區間教育不平等與收入差距擴大的動態研究」,『山西財經大學學報』,2007, 29(8), 48쪽에서 재인용.

중국 정부의 거시적 자원배치는 그동안 도시산업에 경도된 것이었다. 예컨대, 건국초기에 설계된 '중공업 우선발전 정책'은 농촌경제의 발전을 크게 제약했다. 개혁개방 정책의 실시로 이러한 정책은 다소 조정을 거쳤으나 '도시를 중시하고, 농촌을 소홀히 하는' 정책 경향은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 도시와 농촌 간 소득격차에 대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농민의 시민권리는 단지 도시주민의 1/4에 지나지 않고, 소득은 도시주민의 1/6에도 미치지 못하며, 세금부담은 도시주민의 몇 배를 넘어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제공한 공공서비스와 사회보장은 도시 주민의 1/10에 불과하다[31]. 중국의 호적제도와 취업과 관련된 각종 제도설계는 인구의 자유로운 이동을 제한했으며, 특히 농민의 발전기회를 박탈했고, 도농 간 경제발전의 차이를 더욱 심화시켰다. 등록금의 부담에 관한 예를 통해서도 농촌의 소득정도가 어느 정도 열악하며 자녀들의 고등교육 진학기회를 얼마나 제한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 학비가 가정의 일인당 평균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있어서, 도시주민의 경우는 56% 정도인데 반해, 농촌 가정의 경우는 무려 164.6%나 된다. 물론 이렇게 많은 차이를 보이는 것은 또 다른 원인에 의해서이다. 농촌 가정의 경우, 양로(養老) 등의 이유로 3명 이상의 가족구성을 갖는 가정이 도시에 비해 26.54%나 많다. 가정의 소득이 일정하다는 전제로 가정 구성원의 증가는 일인당 소득수준을 낮추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교육의 불균형 발전은 도농 간 노동력 소질의 차이를 직접적으로 결과했다. 2001년 전국인구변동에 대한 조사에 의하면, 농촌의 문맹률은 도시에 비해 9%나 많다(<표7>참조). 두 차례에 걸친 인구조사 결과에서도 도농 간 교육수준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매 10만 명의 인구 중 각종 교육을 받은 인구수에 대한 비교에서 교육수준의 향상에 따라 도농 간 차이가 확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대학(전문대 포함) 이상 학력수준에서는 도시가 농촌의 약 30배(1990년)에서 20배(2000년)가까이 된다(<표8>참조). 이는 정부의 고등교육에 대한 투입의 주요 수혜계층이 도시주민임을 의미한다.

<표7> 15세 이상 문맹, 반문맹 인구 도농 간 비교(단위: 만명, %)

	15살 이상 인구수			문맹, 반문맹 인구수			문맹, 반문맹 인구비례		
	총계	남	여	총계	남	여	총계	남	여
도시 (城市)	24,522	12,177	12,345	1,432.9	309.6	1,123.2	5.84	2.54	9.10
읍 (鎭)	12,460	62,148	62,457	975.7	222.8	752.9	7.83	3.58	12.05
농촌 (鄕村)	57,590	29,305	28,285	8,562.2	2,526.8	6,035.4	14.87	8.62	21.34

자료출처:2001年全國人口變動抽樣調查數据;張海峰,「城鄕教育不平等与收入差距擴大－基于省級混合截面數据的實証分析」,山西財經大學學報』, 2006, 28(2). 34쪽에서 재인용.

<표8> 10만 명 중 교육인구 비교(단위: 명)

31) 林光彬, 「等级制度、市场经济与城乡收入差距扩大」, 『管理世界』, 2004(4) :40쪽.

	전국		도시		농촌	
	1990년	2000년	1990년	2000년	1990년	2000년
초등학교	37,057	35,701	26,582	23,546	40,926	42,558
중학교	23,344	33,961	30,344	35,342	20,797	33,202
고등학교	8,039	11,146	18,077	21,083	4,357	5,302
대학이상	1,422	3,661	4,859	8,769	164	484

자료출처:《全國人口普查資料》(1990、2000年);張海峰,「城鄉教育不平等与收入差距擴大－基于省級混合截面數据的實証分析」,山西財經大學學報』, 2006, 28(2). 34쪽에서 재인용.

농촌의 고급인력의 유실 또한 도농 간 격차의 또 하나의 표현이자 원인이 된다. 농촌의 기존 교육투자 환경 하에서 이미 형성된 농촌인력은 농촌인구의 비농화 과정을 통해 도시와 발전지역으로 대량 유실되었다. 그들의 유실은 농촌의 인력공급에 차질을 빚을 뿐만 아니라 농촌 교육투자의 심각한 유실을 유발한다. 대학졸업생들의 귀향을 기대하기 어렵다. 중국은 중화인민공화국의 건국 이래 농업고등교육기관에서 모두 190여만 명을 배출했는데, 그 중 대부분은 농업을 떠났고 비록 농촌에 남았다 하더라도 일선에서 농업기술직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한적이다. 2000년 대학졸업자의 도시취업자는 총수의 80.18%인데 비해, 농촌지역의 중소도시[縣鎭] 취업자는 15.12%, 농촌 취업자는 겨우 4.10%에 그쳤다[32].

농촌에서 생활하는 농민은 교육적으로 확실히 불리한 위치에 처해 있다. 사회의 구조적 제약이 따르는 것이다. 따라서 그 자녀의 고등교육 진학기회는 물론 학교 및 학과 선택, 심지어 교육의 성과인 취업에 있어서도 불리한 위치를 갖게 된다.

2. 특성화, 전문화 정책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몇 차례의 개편과 조정작업은 각 대학을 특성화 전문화의 길로 나아가게 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었던 반면, 대학 간 격차를 유발시킨 부정적 효과도 배제할 수 없다. 1952년에 있었던 고등교육기관[高等院校]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조정(이른바 '院系調整')과 일부 우수대학을 선정하여 집중 육성하는 중점대학(重點大學) 정책은 대학 간 차별을 유발시킨 가장 대표적인 정책들이다.

그 후 종래의 중점대학 육성정책이 한계점에 이르자 이의 극복을 위해 새로운 중점대학 정책을 준비하는데 이른바 '211 공정'이다[33]. 1000여개에 이르는 대학 중 10%에 해당하는 대학을 집중 육성하겠다는 이 공정은 선택적 투자를 통한 집중의 논리가 실천된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그밖에 1999년 공포된 《21세기를 향한 교육진흥 행동계획》 또한 '선택과 집중'이라는 정책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세계 선진수준을 갖춘 약간의 일류대학과 일급, 일류학과를 창건한다는 내용으로 비추어 볼 때 중점대학 정책과 마찬가지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중국 대학을 선진화 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이러한 선택과 집중을 추구하는 고등교육 정책은 필연적으로 대학 간 학과 간 차별을 유발한다.

그러나 고등교육기회의 불평등을 빚어낸 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고등교육 자체에 대한 정책 보다는 고등교육을 준비하는 단계에서의 불평등 유발정책일 것이다. 기초교육단계에서

32) 马秀莲, 「农村为什么留不住人才」, 『经济日报』, 2002 - 6 - 18 (4)
33) '211공정'에는 21세기를 겨냥하여 100개 정도의 중점대학을 육성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의 시범학교제도[示範學校]와 학교선택제도[擇校制度]는 각 계층 자녀의 고등교육기회의 차이를 유발한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 이 제도는 도농 간 차이 외에도 도시의 각 계층 간 교육기회의 차이를 유발시켰다. 도시 시범고등학교의 진학률 통계에 의하면, 도시의 시범고등학교의 대학입시 통과율은 100%에 가깝고 중점대학에 진학하는 학생은 매년 응시인원의 90%이상에 달했다. 문제는 이러한 우수한 시범고등학교의 재학생이 특정계층에 편중되어 있다는 현실이다. 츠펑(赤峰)시 각급 고등학생 가정의 사회적 지위분포에 대한 조사에 근거하면, 학생 가정의 계층지위와 중점고등학교(시범학교)는 매우 높은 상관성을 갖고 있다(<표9>참조). 또한 학교선택제도에서도 불평등 현상은 여전히 존재한다. 고등학교 학교선택비율이 동급생 학생총수의 30%에 달했지만 농촌계층의 학교선택비율은 겨우 5.4%에 그쳤다[34]. 이상과 같은 자료로부터 우리는 고등교육단계에서의 불평등 구조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표9> 츠펑(赤峰)시 각급 고등학교 학생의 부친 직업 분포

부친의 직업	도시 시범고등학교	도시 일반고등학교	농촌 시범고등학교	농촌 일반고등학교
중상위 경영관리, 전문기술자	44.2	8.0	18.8	4.4
직원, 사무원, 사영기업주, 기타	25.5	15.2	25.9	13.1
자영업자	15.2	34.3	15.6	6.6
노동자	13.1	19.2	9.4	13.2
농민, 농민공, 농촌간부	0	6.1	28.2	62.7
하강, 실업자, 가사	2.0	17.2	2.1	3.3
합계	100.0	100.0	100.0	100.0

자료출처: 楊東平,『中國教育公平的理想与現實』(北京:北京大學出版社,2006), 178쪽; 劉慧珍,「社會階層分化与高等教育机會均等」, 『北京師范大學學報(社會科學版)』, 2007(1), 10쪽에서 재인용.

3. 계층의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 자원의 불평등 점유

경제적 자원, 문화자원, 권력자원 등의 점유정도에 의해 결정되어지는 가정의 사회적 지위는 학생의 고등교육 선택능력을 제한하기도 혹은 장려하기도 한다[35]. 가정의 계층지위의 자녀교육에 대한 영향은 부친의 직업, 문화자본, 정칙권력 등 중개요인과 관련이 깊다. 이러한

34) 劉慧珍, 「社會階層分化与高等教育机會均等」, 『北京師范大學學報(社會科學版)』, 2007(1), 10쪽

35) 王伟宜,谢作栩, 「家庭文化背景对高等教育入学机会的影响」, 『高等教育』,2005 (8), 14-18쪽; 刘精明, 『国家、社会阶层与教育:教育获得的社会学研究』(北京:中国人民大学出版社,2005), 280쪽.

요인들은 모두 자녀의 교육선택능력에 일정한 정도의 영향을 미친다. 특정 계층의 고등교육 기회의 획득이 기타 사회계층에 비해 월등할 때, 고등교육제도가 기타 사회계층에 대해 배타적인지 검토해야 할 것이다.

시장화의 진척에 따라 노동자 농민 자녀의 고등교육 진학비율이 점차 낮아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설사 진학한다 하여도 비중점대학과 낮은 수준의 대학, 혹은 비인기학과에 비교적 많이 분포한다. 1998년 실시된 전국 37개 대학의 7만 여명에 대한 조사와 서로 다른 유형과 수준의 7개 대학에 대한 조사에서도 이러한 추세가 확인되었다[36]. 이는 중국의 중상층 계층이 자녀들에게 더욱 우수한 질의 고등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신입생 모집정원 확대' 정책에 의해 양산된 하층계층 자녀와의 간격을 넓혀 놓고 싶어 하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고등교육 불평등 현상의 원인에 대해 정부 공공자원의 대학에 대한 투입과 학비납부 등의 문제가 거론된다. 정부의 재정투입을 감소시키고 학비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측에서는 고등교육 자원의 공급총량을 늘리고 교육형평성[37]을 높이는 차원에서 '高학비, 高대출' 정책을 지지한다. 그러나 중국의 대출체계가 아직 불완전한 현실로 볼 때, 이러한 정책은 빈곤계층의 진학기회를 더욱 제한할 것으로 보인다. 2002년 6월까지 실제 대출금을 받은 학생은 신청자의 31%에 불과했다[38]. 정부의 학비지원체계가 완비되지 못한 상황에서 학비의 증가는 저소득계층 자녀의 진학환경을 더욱 악화시킨다. 중국의 고등교육 불평등의 가장 큰 원인은 제도에 있다. 개혁개방 이후 지금까지의 사회적 안정은 상층 계층의 '엘리트 결맹'으로 실현된 것이어서 각종 개혁정책은 상층집단의 이익에 유리하게 탄생되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39].

4. 통일적 대학입시제도

대학입시제도는 고등교육 내부에 존재하는 문제이다.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되는 단일대학입시제도는 약세집단의 고등교육 진입을 더욱 어렵게 한다. 동시실시 단일시험의 경우 분별력을 강화시켜야 할 필요성에 의해 지역별 분산 실시되는 시험보다 난이도를 높일 수밖에 없게 된다. 고등학교가 등급화 되어 있고 학교선택제도가 시행되는 전제 하에서, 우수한 고등학교에서 교육을 받을 조건이 되지 않았던 학생의 입장에서 난이도 높은 대학입시는 또 다른 제도적 장애이다.

비록 이것이 대학입시제도가 예측하지 못했던 역기능이긴 하지만 실제로 특정계층의 진학기회를 제한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현행 대학입시제도의 시행과정 중에서 계층별 통과율의 차이가 아주 명확하게 나타나는 것이 이를 입증하는 것이다. 가장 두드러진 계층으로서 농민은 기타 우세 사회계층에 비해 통과율이 매우 낮은 편이다[40].

---

36) 曾满超, 『教育政策的经济分析』(北京:人民教育出版社, 2000) 257 - 274쪽; 杨东平, 「高等教育入学机会:扩大之中的阶层差距」, 『清华大学教育研究』, 2006 (1) : 19 - 25쪽; 谢作栩,罗奇萍, 「闽、湘、川3 省社会阶层高等教育机会差异的初步调查」, 『教育与经济』, 2004 (3) : 3 - 6쪽; 王香丽, 「广东高等教育入学机会研究—对广东省几所高校的调查」, 『高教探索』, 2005(3) : 11 - 13쪽.

37) 이들은 고등교육에서의 무상교육은 공공자원이 중등이상 소득 가정에게 돌아가는 문제를 낳을 수 있으므로 차라리 그 자원은 사회적 소외계층 및 지역에 투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38) 刘民权,俞建拖,李鹏飞, 「学费上涨与高等教育机会公平问题分析—基于结构性和转型性的视角」, 『北京大学教育评论』, 2006 (2) : 47 - 61쪽.

39) 李骏,罗忆源, 「转型中国的高等教育、社会分层与社会公平」, 『上海交通大学学报(哲社版)』, 2005(1) : 66쪽.

40) 李春玲, 『断裂与碎片:当代中国社会阶层分化实证分析』(北京:社会科学文献出版社,2005), 413-426쪽; 刘慧珍,

Ⅴ. 결론

이상의 분석결과가 가지고 있는 계층론적 함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한적이긴 하지만 중국 사회의 중 상류계층이 교육의 질적 차원에서의 차별화에 경쟁적으로 투자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울러 라프터리와 하웃(Raftery and Hout, 1990)이 지적한 차별화전략이 중국사회의 교육계층화에서도 부분적으로 전개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앞의 분석결과에서 제시된 대로 대학진학 여부 보다는 진학한 대학의 학력서열에 있어서 지역간, 도농간 계층간 격차가 뚜렷하게 나타난다는 것은 1990년대 기간 동안 계속되어온 고등교육기관의 확대라는 제도적 공급요인에 의해 대학 교육기회에 있어서 지역 간 양적 차등은 점진적으로 해소되고 있는데 반해, 도농 간, 지역 간 질적 차등은 상당한 정도로 존속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社会阶层分化与高等教育机会均等」, 『北京师范大学学报(社会科学版)』, 2007(1), 10쪽